

그리운 흘긴 눈

그이와 살림을 하기는 내가 열 아홉 살 벼터 분이었습니다. 지방은 이래로 삼십도 못 된 년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웃자 말아요. 기생이란 스무 살이 환갑이라니, 삼십이면 이글테면 백세 상수한 할머니쟁이가 아니야요? 그 때는 괜찮았답니다. 이 쿡쿡쫓는 입술도 발코느림이었고 토실한 뺨불이라든지, 지방은 족부(顴骨)란 별명조차 듣지마는 오동동한 볼피라든지, 산성도 희고, 옷을 입으면 땀셔도 나고, 걸음걸어도 멋이 있었답니다. 소리도 그만이 만이 하고 춤도 남의 흉내는 내었답니다. 화류계에서는 그래도 누군 하고 이름이 있었는지라, 호강도 우연만히 해 보고 귀염도 남불잖아 받았습네다. 망할 것, 우스워 죽겠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 하고 제 정찬만 하고 앉았으면.

어쨌든 나도 한시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구멍이 막히지도 않아 요릿집에서 안락지가 오고, 가고만 보면 새로 두 집 석 켜 산에는 삶에 돌아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집에 와서 곧 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대개 삶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또는 손님과 간이 올 때가 많았습네다. 그래 가지고 또 고달픈 몸을 밤새도록 고달프게 굴다가, 해 뜰 뒤에야, 인쇄 내 세상인가 보다 하고, 간신히 눈을 붙이면 사정 모르는 손들이 낮부터

달지않아서 고단한 몸을 끌고 뚝구강을 간다, 들굴이를 간다, 실에를 나간다, 합니다.크리 크리나 몸이 피로 않을 수 있습니까? 놀거란 잠 고된 일입니다. 어느 때를 사지가 늘어지고, 노는 것이 딱 싫고 귀찮아서,

“이년의 노릇은 언제나 마나?”

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날 때 나의 눈앞에 크이가 나타났습니다. 네모뎀 네 해 말아인 크리, 귀동지럼게 얼굴도 곱상스럽고 몸도 잘 쓰며 노는 몸도 재미스럽고 호기스리 있습니다. 나는 고만 크에게로 마음이 솔깃하고 믿었지요. 크이는 나에게 적지 않게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크리처럼 관제가 깊어 가자, 크이는 나와 심지어 줄로지 않겠습니까? 마춤 기생 노릇도 하기 싫던 차이고 밍지도 않은 사내라, 내심으론 이게 웬 떡어나 싶었지만, 그래도 겨생 행투가 그렇지 않아 이 형제 지 형제로 크이를 비쩍 당게 해서 돈 천 원이나 착살히 빼앗아서 어머니를 주고 막지못해 이놈 노는 것이 살림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이는 갓어라도 빼이 먹일 듯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나를 인기 신에도 오입 깨나 해 본 모양이었으니, 나이가 나이리, 어리고 침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말이면 몸을 편이라 해도 물어들었습니다. 나의 칭이라면 무엇이든 나중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눈치를 알아본 나는, 크이로부터 갖은 것을 주려내었습니다. 우리 들 짐 문자도 내 이름으로 내게 하고, 자개뎀이랑, 사개 의검이랑, 한 건 벽애 맞는 큰 체징어랑, 물론 온갖 미단과 포복을 편 칼이 들어오게 하고, 천천에 따르기는 미더며, 사흘둘이로 신고개에 기서는 손글 번지, 진주 번지, 보석 번지를 사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어머니의 생선이라는 둥, 인기의 손레애 쏘나는 둥, 징서에 쏘나는 둥, 밧을 쫓다는 둥 갖은 쟁계를 만들어서 크의 손을 굶어내었습니다. 무슨 내 변명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한 게 진수이 나의 욕심 사미운 끼닭도 이됩니다. 사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 그것이 이원지 좋고 재미스럽기도 하였어요. 크라고 또 그것이 크에게 피우려는 애교이고 아양이었어요. 그것뿐도 아니지요. 내 말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니, 곧 크이가 나한테 얼마나 옹기였는지를 자질도 하고 싶

고, 뜻대로 성공을 하면 물건 얻은 것보담 몇 갑절 더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미 나가 뒷구멍으로 부추가기도 하였지만.

그인을 빗 받침을 세 수중에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팔고 빗을 내는 것이나, 히로 이를 아나고 물 쓰듯 하는 돈을 언제까지 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이 산 자 석 달이 못 되어 돈 주변엔 간이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이보리 귀한 사식의 빗봉수라도 한 번 두 번아자 전부 아버지가 갚아줄 리가 있겠어요? 터구나 꾸두죄로 유병한 그의 부친이 그 때까지 참은 것도 양한 일이지요. 마중내,

“너 같은 늙은 사식으로 알지 않으니 죽든지 산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러고 얼렸지만 인제는 아주 사살로 나다나게 되었겠지요.

빗쟁이는 빈배같이 일어났습니다. 요릿집에서 굶은방에서 신신(紵塵) 드워 전에서 터구나 고리대금업자한테서 빗쟁이는 물건을 떠날 새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로 자라나 노보지 줄리는 것을 모르던 고이는 담박에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문간에서 잦은 소리만 나면 원 몸을 웅송 그리고 일꾼이 파랑개 질러주는 풀이란 길에서 보아도 기어없었습니다. 내 탓으로 이 곤란을 받건마는 그래도 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가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에 줄리는 것이 막하기도 야고, 또 자격지심도 나지,

“나 때문에 이런 곤란을 당하시지요? 내가 몸쓸 년이야.” 하면은, 고이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마 질색을 하고,

“왜 채산(彩仙)이 때문이람? 내가 못생긴 탓이지.”

아 고리는 토리어 면복 없는 듯이 고개를 숙이었습니다.

어린 중에 고에게는 또 기막힌 일이 생기었지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고이가 돈 쓰기도 급하였고, 또 못된 동부의 꾀임에 빠지어 아버지 노상을 위조하여 빗을 낸 일이 빌가이 된 것이야요. 돈 뛰어준 늙은 물론 알고 한

일어지만 그의 아버지가 나를 보러다오 딱 거절을 하니깐 언제든 그이를 보고 어딘따박거리며 시기를 했으니 연상 위조를 했으니 만일 일주일 안으로 깊지 않으면 고소를 하니 하니 하고 아단을 합니다. 건이 작고 마음이 여린 그는 얼굴이 섧도록 다 들어가셨지요. 몇 번 그의 어머니를 세에 두고 도는 직접으로 자기 아버지께 말을 해 보라는 모양이었으나 도모지 일이 인 된 줄은 그 쫓긴 눈썹과 부러진 새 줄지 같은 어깨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이는 조바심이 되어서 못 견디는 듯이 누웠다 앉았다 일어섰다 급세로 짐을 뛰어다니는가 하면 급세로 또 뛰어들어 오셨지요.

그리다가 나중에, 들부치나 무엇같이 한 자리에 우두커니 있으면 병하니 바깥면만 바라보고 어느 때까지 손끝 하나 꼼짝도 아니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그 일주일이란 가혹날이고 오늘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이름답게 흰 구름이 봉오리 봉오리 솟은 하늘엔 맑은 달이 걸려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마루로 나와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나는 문득,

“작년 이맘때에는 한강에서 실연을 하였는데.”

하였습니다. 낚시자리로 시원한 물결은, 그날자를 부수려는 배기 눈앞에 신에게 떠 보이며 감지가 텅고 감김해서 견딜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모리 뻗지 좋은 나일고, 서민광장으로 빛에 줄러이 머리를 못 도는 그이에게 뱃돌이 가질 염의야 있어요?

“이런 밤에 집에 서막히이 나가지도 못하구.”

하에 변화롭던 옛날 기생 생활이 그러웠습니다. 삼십 들어온 것이 후회가 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날뛰는 관에 집에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돌아다보니 그이가 울고 있지 않아요.

“왜 우세요?”

하나짜 일을 대답은 아니 하고 실음이 북만사이 잠을 수 없다는 듯이 더욱이 코만 들어바치다가 껌피대는 북정으로,

“채신아는, 채신아는 내가 내가 갑옥엔 들어가면 또 기생으로 나가겠지?” 하고 눈물이 그렁거리면 눈을 나에게로 돌려겠지요. 내 속을 알아채었다 보다

하고 가슴이 뜨겁하있으며 돌아먹은 보람이 있어서 남밖에,

“홍업게스리 그제 무슨 말씀이예요?”

하고 질색을 하였습니다.

“이녀아, 내가 김옥엘 가면 채선이는 또 기생에 나가시 뭇님의 사랑을 받으
지아.”

김옥에 간단 말이 조금 안되였지만 속으로는 암 그렇지 하면서도 위 밖에
내어시는,

“그럼 리가 있겠어요? 선병 나으리가 김옥에 간다손 저디라도 내야 뎡신
사람이 아니아요? 왜 또 기생에 나가겠습니까? 막에 가서 행령병 구석으로
숨어나달지라도 나으리의 니 오시거만 기나라지요.”

라고 물을 담아 뭇는 뭇한 마음에 있는 편청을 부리었습니다. 이 밤에 그이는
매우 감동된 모양이었습니다. 비썩 다가들며,

“그제 참말이야?”

“그럼, 참말 아니구.”

“그래, 내가 김옥엘 가도 수절을 하고 나를 기다리겠단 말이야?”

“그럼, 수절하구먼구.”

천연덕스럽게 꼭 그리한 듯이 따 끓이서 대답을 하였으며 속으로는 수절이
란 말이 어째 「준항전」이나 읽는 듯해서 우스웠습니다.

“만일 내가 김옥엘 이녀 가고 죽는다면?”

하고 그이는 나의 일골을 딱 노리었습니다. 그 시선이 전에 없이 날카로워서
슬쩍 외면을 하면서도,

“따라 죽지.”

하고서 청승맞게, 더 죽고 나 삼면 열녀 되나,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도 죽
지 하리 노래를 읊었습니다. 나도 죽인 녀이시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이는
또 얼빠진 듯이 우두키니 앉았다가 무슨 뉘뉘한 경침을 한 것같이 벌떡 일
어서며,

“채선이, 내 할말이 있으니 방으로 들어가자.”

하지 않겠어요? 나를 흥 뜨고 있고 끼고 하려나 보나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죽도
숨기가 남아 있어 남 보듯, 데 아니 남이 볼 만한 대에서, 나의 손목 한번
시원스럽게 못 잡고 그리 하고 싶을 때엔 목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터쿠
나 요사이 와서 불시 금심을 한 뒤이라든지 또는 비관한 뒤이라든지 받드시
나를 쓰다듬고 이리민지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짐작을 한 나는 조금
양탈도 하고 싶었으나 그의 온 것이 가없어서 말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온 그는 명분을 모두 안으로 달아 건졌지요. 내 짐작이 틀리지 않구
나 하면서도,

“이 유원 염전에 명분을 왜 달아요? 남 더워 죽겠는데.”

라고 꼭짜를 움겼지만 그 밤에, 아모 대답이 없고 제 한 일을 다해 버립니다.
진 간으면 부끄러운 듯이 눈을 썩긋하기도 하고 눈빛으로 별 말라고도 하였으
면, 나는 벌써 내 입술에 닿는 그의 입술, 나의 핏기슴으로 허리로 도는
그의 팔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이상스럽게 엄중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얼마 만에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정이! 네나 내나 이 세상에 더 구차히 산다 현들 또 무슨 나을 보겠니?
차라리 고만 죽어미라는 게 어찌냐?”

하겠지요. “며쥔나,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도,

“그래요. 고만 죽어 버리요.”

라고 침착히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 나하구 같이 죽을 테냐?”

“나으리하구 죽는다면 죽는 것도 풀이지요.”

“내야말로 니하구 같이 죽는다면 한이 없겠다.”

하늘 그녀의 소리를 멀리었습니다. 너도 일부러 목이 매어,

“내야말로 나으리하구 죽으면 한이 없어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면 정말 나하구 죽을 테냐?”

“원 따심도 하이. 죽는다면 죽는 게지. 그렇게 내가 못 머뭇달 말아야요?”

하고 가장 남의 죽을 못도 알아준다는 듯이 새파랗게 성을 내었습니다. 그리

하루는 것이 어찌 실패 일부를 하려는 뜻심이 재미스러웠어요. 실마 줄을 리고 만부하고 이왕이면 어디로든 너한테 성이 깊다며, 길 표시함도 좋았어요. 그이름 나의 기색을 살펴더니 그만하면 되었다 하려는 것이 땀 났더니 자기가 쓰는 가방을 가져오더니 그 안에서 흰 봉지를 하나 꺼내내겠지요. 그 봉지 속으로는 밤나무만한 고약 같은 것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아편아구나.”

하메 가슴이 조금 썩들거리었으며 그리 놀라지는 않았습다. 그 약으로 말하면 그이가 돈 안 주려는 자기 아버지를 놀리게 하려고 몇 번 자기 어머니에게 보이는 것을 길에서 꾸짖을 하였으니까요. 그것을 먹고 죽는다고 야단을 해서 눈을 열어 온 일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망 와서 새삼스럽게 놀랄 것도 없지 마는 같이 죽자는 만큼엔 그것이 나온자리 사망껏 날뻗던 마음이 조금 긴장은 됩니다. 그이를 자리끼를 당기더니 그 약을 입에다 넣고 이윽히 내려다 보며 닭의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 때만은 나의 가슴도 찌르르 하였습니다.

한참 약을 내려다보고 울고 있던 그이는 무슨 비정한 결심을 한 듯이 몸을 흔들었다더니 그 약 한 개를 왼손 입에 집어 넣고 한 개를 집어 오른 주지 않겠습니까. 너도 사슴지 알고 그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약을 머금은 그이 손가락으로 자리끼를 가리키 너한테 물을 마시란 뜻을 보여었습니다. 나는 그의 서기를 대로 물을 마시었으나 물만 남기었자 약은 허 밑에 감춰둔 것은 물론입니다. 내야 꿈에도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같이 사는 정의에 그의 빛에 줄리려는 것이 딱하지 않은 바이 아니고 그 때문에 살림살이가 전같이 호화롭지는 못하였을명칭 그길로 비관한 까닭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징 못 살게 되면 도로 기생으로 나갈 뿐입니다. 벌써 살림살이에 물러선 그럴지 않아도 기생생활이 그림던 나인데 아직 나의 어리고 남에게 기임 받던 일, 호강하던 일이 여제 일같이 억력히 기억에 남아 있는 나인데, 앞길에도 기쁨과 호상이 춤추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는 나인데, 왜 죽자! - 마음이 주호만친들 생기겠습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그이가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

니다. 처음엔 설없는 거짓말로 알았고 약을 마시는 뒤에라도 또 무슨 안락은 꾸미는가 보다, 내안이고 보려면 그 내에서 허덕거리 돌을 찾아 줄 터이니 또 흥청거릴 수 있구나 하고 도리어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독약을 먹고 하는 노릇이라 가슴이 조금 이너 떨려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찌해요! 고이는 나의 물 머시는 것을 보더니 매우 안심된 듯이 내 손에서 자리꺼를 빼앗아 꿀떡 마시 버렸습니다. 고이가 정말 약을 삼킨 것은 좁은 목구멍으로 굽은 약병이가 넘어가노라고, 얼얼이 새빨개지고 어깨를 주스리며 목줄기가 구불탱거리게 되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고만 뒤로 뒹덕 자빠지겠지요. 약 휘어 십시간에 퍼진 것은 아니겠지만 약을 먹었다 하는 생각에 정신을 잃었는가 보지요.

이 뒷밤에 일해 고이로 보면 조금도 뜻밖의 일이 아니겠지만 나쁜 터한 수 없이 놀라었습니다. 지이가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갈당갈당 가슴을 찢어 찢어 자마자, 뒤라고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온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려는 고작해야 연 약혼 삼 마은 제집에가 아니야요? 이 난생 처음 당하는 곤란에 이안이 뱅뱅하여 ‘약’ 소리도 지사 못하고, 가위눌린 듯만 침울거리다가, 나도 죽었네 하는 듯이 뒤로 자빠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고이가 뒹덕 일어나 버진 듯이 방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편을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라는 것은 뻔한 거짓말인가 보지요. 땀땀하고 뒹들거리지 못 전디겠다는 듯이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핫핫 하고 괴로운 숨을 토합니다. 그러더니 타짜코짜로 두 손을 위안으로 넣어 뽁뽁 핫구익질을 하겠지요. 아바 속아 너무도 괴로우네 죽지는 걸심도 간 곳 없고 먹은 약은 도해 났 작정이던가 보지요. 그러나 약은 아니 나오는 듯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도 일변 무섭기도 하였지만 못 전디리 만큼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고의 말은 고통이 노보사 내 탓이 아니야요? 난로 히이 돌을 뜨고 그 돌에 붙었다 못하여 죽는 죽음이니 내 탓이 아니고 누군의 탓이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그를 속이었습니다. 거짓 죽는 시늉을 해서

그를 죽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따라 죽었다 아니 해도, 그를 만났었다면, 그에게는 이미 죽고 만났을지도 모르지요. 그 약을 먹고 자린 욕을 이미 풀고 죽어 모르지요. 그러면 내 손으로 그이를 죽인 것이니 신배가 무엇입니까? 그 때에야 물론 이렇게 자라를 쫓아서 생각을 안 했지마는 이미 그이와 괴로워하는 풀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신지라를 지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 때입니다. 무엇이 나의 어깨를 흔들지 않아요? 뽕뽕 눈을 떠 보니까 그이가 선이치 올라가려는 개개풀린 눈으로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겠지요. 나는 소림이 쪽 끼치어 흠짓하고 몸을 조스라지 일으켰습니다.

나의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이도 따라 일어나서, 용시에 날라는 표정으로, “괴롭지, 괴롭지? 분명히 나 때문에.”

라고, 더듬거리고는 눈에 눈물이 뿜 도는 듯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어쩐지 부처움에 떠는 나의 장사 속까지 스며들어가려는 듯하였습니다. 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자 그이는 마썸 다가들며, 흰 손으로 내 목덜미를 잡고 또 한 손일랑 나의 입에 들어대입니다. 죽어 가는 그이, 아니 벌써 송장이나 신배없는 그이의 손이 나에게 닿았건만 나는 소림도 신같이 두렵고 부처운 증이 들지 않았습니다.

“배알아리 배알아, 이서 배알아.”

하고 그이는 손가락을 내 입안으로 꿰어넣어 들어보겠지요. 이 때에 입안에 든 약을 생각한 나는 흘러난 눈물을 뚝 그치고 애 그버니! 싶었습니다. 나를 그이의 지송헌 사랑에 감음하였으되, 그이가 둘러대리고 애를 쫓는 것이로되, 나는 그 약을 내어 놓기가 죽어도 싫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삼겨버리리 하였습니다. 밋 뽕을 침을 모아 그 약을 넘기리 하였으나 인수엿 님이가 곧 껌날의지 세쌍 님이가지들 있습니다. 그러는 환에 내 입에 들어온 그이의 손가락이 벌써 그 약을 집어내겠지요. 그 약을 집어내지 나를 바라보던 그이의 얼굴은 석방도 잊하지 않습니다.

어찌면 그 곱상스럽던 얼굴이 그렇게 꼭집게 변할까요! 나는 이렇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집이 만 사내를 끼고 자는 것을 보고, 문밖밖의 얼굴이

나 그리할는지요? 그 얼굴의 표정은 분도 그 것이었습니다. 원한 그 것이었습니다. 입술을 악물고 그리던 아꼐 하다면 모고라도 꼭꼭든지 질겁을 할 것이었다. 다급히 잊어서 잊는 것은 그 눈자위예요. 일상 생활생활 웃는 듯하던 그 눈매가 위로 움푹이어서 머신 개 눈썹같이 핏방을 세워 나를 흘길 것이어요. 그 부침거리면 시뻥 생각이어도 뭉치리가 지어요. 그이는 숨어 쉴 뉘에도 그 흠뻑 눈을 감지 않았습디다.

물론 나는 고역한 뉘이지요. 그를 죽을 때까지 죽인 뉘을 뉘이지요. 그러나 그이로, 나에게,

“괴롭지?”

아고 묻지 않았어요?

“배알아.”

다고 하지 않았어요? 돌리내려고 내 위에 손까지 댄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악을 삼키지 않고 그지 었음을 보았으면 내 마음을 어찌하든지 그이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생각한 만큼 거북한 사랑을 가진 그이는 기뻐해야 옳을 일아 아니예요? 좋아해야 옳을 일아 아니예요? 그렇게 상을 내고 나를 흘길 일아 무엇이에요? 내 그들 것은 어찌했든지 그 때에로, 그이가 야속한 듯싶었어요. 야속하다? 아니모담 어외이었어요. 그런데 시뻥 와서로 그 흘길 눈이 떠니을 작디나 뭉치리가 지어면시도 어째 성나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운 생각이 들어요.

(폐허이후 , 1924.1.)